

## 일상과 성스러움이 함께하는 오롯한 공간

김석윤 (건축가 · 제주문화포럼 이사장)

제주의 주거형태는 한반도의 주거계통 중에 그 외관과 내용구성에서 각별한 고유성을 지니고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휘말려 쇠락되어 버린 형편이고 이제 제주형 주거는 물론 경기도형 주거라거나 또는 영남이나 영동지방의 주거라는 표현조차 없어져버린 시대를 맞고 있다. 국토의 어느 곳을 가 보아도 똑같은 모양의, 단지 '어느 회사 상표의 몇 평형' 만으로 분간되는 현대식 집합주거가 우리 주거문화의 대종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주 주거를 얘기함은 역사 속 문화유산이 되어버린 우리들 선조들의 삶의 흔적 속에서 찾아낸 것이어서 오늘의 제주 주거와는 동 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제주의 전통주거에서 적지 않은 독자적인 요소들이 찾아내어져 있으나 그것들 중에서도 특히 주거문화의 내용 확장과 건축적인 의미의 폭을 넓힐 가치를 지닌 것들을 중심으로 제주의 주거를 해석하여 보는 것이 현대식 주거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함에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 대문이 없음(無門)

주거에서의 문은 어느 곳,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상징성으로서의 의미가 큰 시설이다. 특히 근세인 조선시대 까지도 문의 크기와 숫자로 신분 과시의 표본으로 되어 있었고 정려문이나 홍살문과 같이 특별한 의미를 담은 문 형식도 많았었다. 이것은 중국 고대 예서의 궁실제도에 '五門三朝, 三門三朝'라는 기록에서 처럼 신분에 따른 가옥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어 보인다.

제주의 주거는 원래 문이 없는 것으로 설명한다. '정낭'이라는 원초성 장치가 그 기능을 대신했었다. 구멍이 세 개가 뚫린 정주목을 올레목의 양측에 세우고 정낭을 세가닥 구멍에 끼워 우마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집주인의 출타 여부를 알리는 디지털 통신체계형식의 문이 제주고유의 문이었다.

혹간에는 기후대가 태풍지역에 속해 있어서 바람에 쉬 넘어지므로 대문을 안 두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같은 아열대성 저기압대에 있는 일본 오키나와 지방 민가의 '헨붕'이라는 바람막이 장치를 연상하여 얻은 추측일 것이다.

그 형식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가는 그것이 갖는 상징과 미지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게 되면 중요한 것이 못된다.

이미 이 제주 고유의 대문인 정낭은 그 단순한 추상성 때문에 어느 예리한 조각가의 안목에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징조형물로 되살아나 있고 디지털의 원류가 이미 선시대 제주인의 사고 속에 생성되었다고 그 의미를 넓혀놓고 있음이니 새 시대의 주거에서도 이처럼 자기만의 표정을 지닌 대문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겨질 때가 곧 와야 하리라 본다. 주거는 그 주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 사랑채가 없음

‘舍廊’이란 주거 내에서 순수 가정생활 외 접객이나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생활 전용공간을 말한다. 고전에 사랑은 ‘中門橫待客之所 俗謂舍廊...’ 하여 중문에 가로 놓여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를 말한다 하였고 茶山の 雅言覺非 권3 舍廊條에 ‘舍廊者 堂側之橫...’ 하여서 그 용도와 형상을 알만한데 원래 사랑의 전형은 정침과 담장을 두고 떨어져야 하는 것이나 ‘宅譜要典’에는 ‘中小建 則 中牆未隔 故五門之外’ 하여서 작은 집에서는 한울 안에도 있을 수 있다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에서는 ‘안거리와 밖거리’라 할 뿐 주거의 內棟과 外棟의 쓰임새가 크게 차이가 없고 밖거리의 한쪽 끝에 머릿마루나 머리방을 두고 손님을 들이거나 접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1840년에 제주에 유배되어 8년간을 갇혀 살았던 명필 秋史선생은 서간에 제주주거의 外棟의 모습을 ‘內舍則 使 主人 依舊人處 只概外舍割半分界 足以容接’라고 묘사하고 있다.

엄격한 유교의 남녀간 내외법에 따라 여인들이 갇힌 내밀한 곳인 안채와 남성들이 풍류생활과 한담을 나누던 열린공간인 사랑채로 이루어지는 한국식 주거의 원형이 아직 이 곳 제주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 편일 것이 없이 남자도, 여인도, 노인도, 젊은이, 아이 할 것 없이 어울어져 일하고, 살아왔음이 제주인의 삶이었다. 실학시대 이래 皆人勤勞의 이념은 이미 제주에 서는 고유의 것이었던 것이다.

### 별동의 정지가 있음

일본의 오끼나와의 민가를 보면 ‘釜屋’이라는 주거동과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엌채를 볼 수 있다. 일본의 학자들은 이를 別棟造 혹은 二棟造 주거라 부른다. 아열대성 기후의 소산일 것이다.

제주도에도 부엌이 판채인 주거가 꽤 많이 발견되었었다. 특히 옛 제주의 목안



지역이었던 제주시와 그 이동지역인 조천읍과 구좌읍에 많다. 성급한 이들은 이를 보고 제주도 주거가 남방계 주거임을 증거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또 다른 한 연구는 이것을 여성들의 노동관습과 연관하여 나타난 문화로 해석한 예도 있었다. 하지만 그리 쉽게 결론이 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형식의 주거는 제주형 전통 주거형식중에 최후 발전 단계에 나타난 형식이고, 대규모 주거에서 흔케 나타나며, 그리고 이 유형 주거 창건주들의 신분이 거의 조선시대후기 향반신분에 있던 사람들이다. 왜 이런 공통점을 지니는가에 의문이 남는다.

또 제주도 주거의 전이 단계를 살펴보면 막살이집에서 세칸집, 두거리집, 네칸집으로, 다시 세거리집, 네거리집으로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초기 정지간이 붙어있는 간살이로 시작된 후 세칸집에다 세거리집 이후 단계에서 별동 정지형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창건주들이 지식인층이었으니 자신들의 조영이념이 집짓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이런 현상은 당시 사회에 보편화 되었을 것이다. 주거를 영조하는 지식이 이시대 식자층의 기본 소양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과거의 주거형식에 바탕을 두면서 자신들의 신분적 권위와 이상을 충족시켜줄 최선의 주거형식을 찾아낸 성과가 이 별동형 주거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주거형식은 차차 그 분포역을 확장해갔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거형식이란 언제나 그 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의 동질성이 형성되고 나서 새로운 형식을 발생시킨다는 원리를 상기하게 된다. 이제부터 주거형태는 이념의 소산이 된 것이다.

#### 聖所 안뒤가 있음

제주 주거의 공간계에서 완결점인 안뒤는 제주무속에서 富의




상방에서 본 안뒤

신인 밋칠성을 모셔놓는 신성한 곳으로 주거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시설되어 있다. 이 곳은 안거리의 내부를 통과해야 하는 내밀한 곳이고 외부와는 특히 높게 쌓은 돌담으로



별동의 정지

격리되어 정갈한 수목과 함께 경건함을 체험하게 된다.

사람이 사는 곳 가까이에 성스러움이 함께 있음이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성스러움과 저속함, 그윽함과 경박함의 차이도 분간 못하게 그저 한결같고 무표정한 현대주거에 안뒤같은 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주목에 있는 올래목



밖에서 본 안뒤